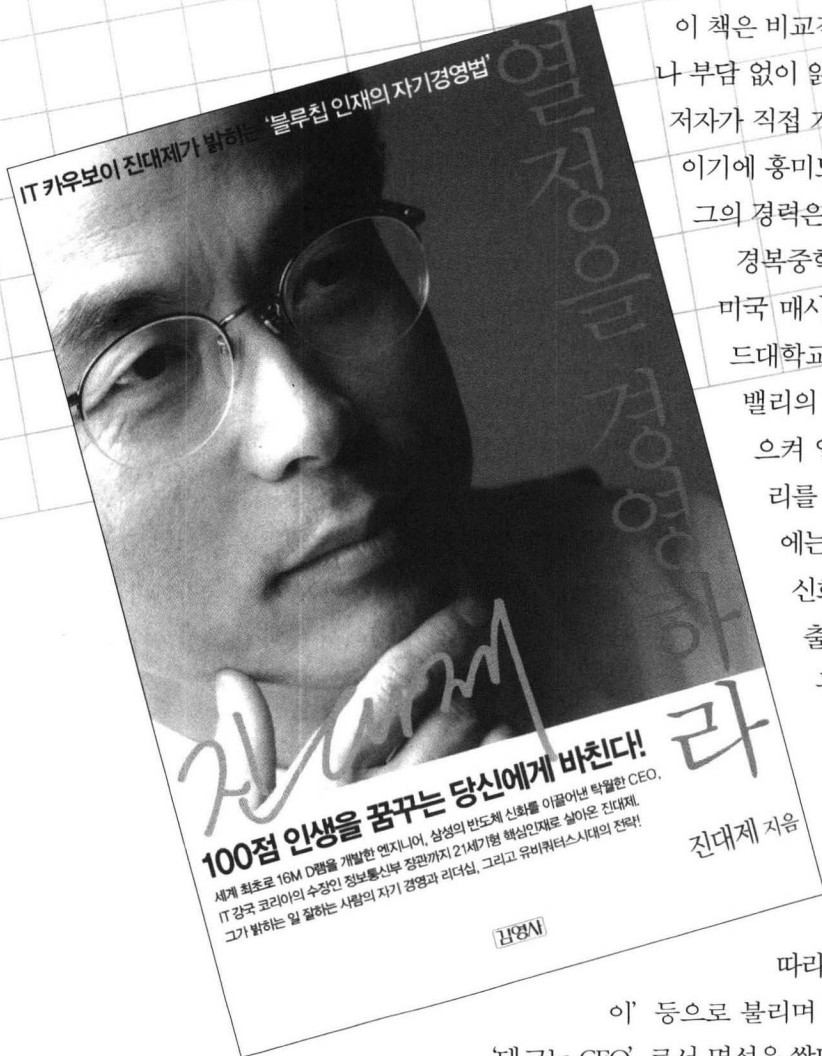


진대제의 《열정을 경영하라》

경제전문가들은 한번쯤 꼭 읽어보라

글_ 최용식



《열정을 경영하라》 진대제 지음 | 김영사 | 394쪽 | 값 12,900원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www.taeri.org)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 《경제역적들이 들어라》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 등이 있다.

이 책은 비교적 쉽게 쓰였고, 줄거리 전개도 매우 빠르다. 누구나 부담 없이 읽어볼 수 있을 것 같다. 한 인간의 성공 드라마를 저자가 직접 기록한 책으로 그의 성공은 누구나 부러워할 내용이기에 흥미도 만점이다. 이 책의 저자소개에도 나와 있듯이, 그의 경력은 '화려' 라는 용어로도 부족할 정도이다.

경북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와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전자공학과를 거쳐,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실리콘 밸리의 IBM에서 근무하던 중 '조국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켜 일본을 집어 삼키겠다' 며, 1985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긴 그는 1987년의 4MD램 개발에 이어 1989년에는 세계 최초로 16MD램을 개발, 삼성의 '반도체 신화' 를 이끌어내는 주역이 되었다. 정통 엔지니어 출신으로 1987년에 이사, 1992년에 상무, 1995년에 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계속한 그는 2000년 삼성전자의 디지털미디어 총괄사장이 되었다. 이후 그는 소니와의 진검승부를 선언, 노트북 시장 공략에 이어 대형 디지털TV로 전 세계가 난공불락이라고 믿었던 소니의 아성을 꺾으며 오늘날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소니를 따라잡는 기반을 마련했다. '미스터 칩', 'IT 카우보이'

이' 등으로 불리며 탁월한 추진력과 판단력, 위기관리 능력을 가진 '테크노 CEO' 로서 명성을 쌓던 그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9대 정보통신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체신부를 포함한 정보통신부 역사상 최장수 장관 기록을 세우면서 3년여 동안 IT강국 코리아의 입지를 굳혔다. 세계 경제전쟁의 레드오션 속에서 한국의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 IT839전략과 U코리아 프로젝트를 수립,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와 'DMB' 등을 개발한 그는 21세기 한강의 기적을 이룰 한국의 신성장동력은 IT산업과 과학기술에 있다고 믿었다.

이 책이 나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유도한 이유는 그에 대한 부러움이 남다르게 크다는 데에 있다. 내 꿈도 그의 꿈에 못지않게 크지만,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할 기반도 이미 충분히 마련했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현실은 나를 용납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러움이 더욱 크다. 내 꿈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세계 경제학계가 경제학을 배우러 대한민국에 찾아오게 하겠다' 는 것이다. 이 꿈을 실현

시키기 위해 나는 40년 가까운 세월을 경제학 연구에 몰입했고, 그 연구성과를 집약한 《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다른 하나는 경제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10년 안에 일본경제를 뛰어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일본경제 뛰어넘기 프로젝트, 꿈은 이뤄진다》라는 책에 담아 발간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이 두 책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위의 두 꿈이 어찌 개인에게만 영광스런 일이겠는가.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물론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특히 내 연구업적은 제도권 안에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는 진대제의 성공이 너무 부럽다. 그는 연구성과를 현실에서 실현시켰고 충분한 보상까지 받았지 않은가.

그와 나는 가난한 어린 시절 등 여러 면에서 아주 비슷하다. 심지어 이런 점들까지 비슷하다. 즉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에' 반값지 않은 평생의 친구도 하나 생겼으니, 바로 사타구니 습진이다. 같은 자세로 하도 오래 앉아 있었더니 아주 지독한 습진에 걸려, 이후 40여 년을 가려움증에 고생했다'거나 '얇은뱅이책상에서 공부하던 습관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지금도 집에서는 의자 딸린 책상을 쓰지 않는다.(중략) 1985년에 산 티테이블을 얇은뱅이책상으로 애용하는데, 20년이 넘었고 손때가 많이 묻었지만 아직도 애지중지하며 쓰고 있다'(167쪽)는 것이다.

물론 그와 내가 걸어온 길에는 차이도 크다. 그는 서울대학교를 거쳐 성공의 한 길을 쪽 걸어왔지만, 나는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육군사관학교를 가겠다고 고등학교를 선택했는데, 백부가 소위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당했던 기록 때문에 중도에 진로를 바꿔야 했다. 이것을 계기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과학적으로 해체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정치사상을 전공으로 선택했었는데, 이것도 도중에 바꿔야 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과학적인 기초가 경제학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다. 대학을 마친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직장을 선택했는데, 내가 추구했던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도 배울 것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 내 진로를 또 바꿔놓았다. 나처럼 진로를 자꾸만 바뀌는 사람과 진대제처럼 한 길을 줄기차게 걸어온 사람은 그 업적도 크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여러 사람에게, 특히 경제전문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가 얼마나 밝은가를 이 책을 통해 재인식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경제란 자기실현성이 어느 다른 분야보다 높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다시 말해서, 경제의 미래가 밝다고 보면 경제는 호조를 보이게 되고,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고 보면 경제는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 경제가 현재는 물론이고 장래까지 어둡다고 믿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는 성장동력 산업이 없다거나 원천기술이 없다며 떠들고, 국민들은 이것을 진실인 양 믿고 있다. 이래서야 어찌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성장동력 산업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딜로이트라는 세계적인 회계법인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500대 기업'을 2005년 말에 발표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에 무려 109개가 등록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인구는 13억에 달하는 중국은 80여 개를 등록시켰고, 우리 경제규모보다 여섯 배나 더 큰 일본은 겨우 70여 개를 등록시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성장동력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과학전문지에 발표된 논문건수는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2위이고, 증가율은 세계 2위라고 최근에 언론이 전한다. 2004년 말에는 발표건수가 세계 14위였고, 증가율은 세계 4위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 원천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가를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고 떠들고 있다. 경제의 장래를 위해서 건설적인 정책을 제안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부진의 늪으로 끌고 가겠다고 걱정만 같아서, 같은 경제학자로서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에게 한번쯤은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제발 이 책을 읽고, 우리 경제의 장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줬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밝아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한**